

## 연천군민,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통일미래를 체험하고 북한실상을 이해하다.

- 한반도통일미래센터, 지난 2월에 이어 연천군 지역 주민 200여 명 초청 행사 진행

-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(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, 이하 '센터')는 4월 24일(수) 연천군 전곡읍과 청산면 주민 200여 명을 초청하여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.
  - 이번 행사는 청소년 중심의 통일체험연수 기관으로서의 센터의 역할에 더하여 지역 주민과 군 장병을 비롯하여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통일 공감대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.
  - 행사에 참가한 연천군 주민들은 통일 이후 통일 편익 등 통일 미래를 체험하고, 북한 인권영화 '비온드 유토피아' 관람과 '북한이탈주민과의 이야기 공연' 등을 통해 북한 실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  - 전곡읍 주민 김성환 씨는 "북한 인권의 실상을 보다 잘 알게 되었고,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."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  - 주민 조성인 씨는 "통일이 되면 연천군이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."면서 "정부의 통일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."라고 말했습니다.
- 센터는 지난 2월에는 연천군 왕징면과 미산면 주민 130여 명, 28사단 군 장병 100여 명, 3월에는 5사단과 28사단 군 장병 260여 명을 초청하여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는 등 연천군 지역의 통일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.
  - 한편, 센터는 올해 들어 4월 22일까지 초·중·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총 29회, 연 인원 3,400여 명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.

□ 앞으로도 센터는 4월 27일(토) 예정된 첫 번째 정기적 대국민 개방 행사 등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 실상을 이해하고, 밝은 통일 미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.

<붙임> 연천군 주민 초청 연수 사진 <끝>

담당 부서	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	책임자	센터장	마경조 (031-839-7901)
		담당자	주무관	이정훈 (031-839-7924)

